

대구주보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2013.12.15.(가해) 제1867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스페인)

† 오늘의 전례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 11,2-11 참조)
구세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을 겪는 이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 계신 줄을 모르고 믿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요즘 세상에도 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의 손발인 우리가 자선을 베풀으로써입니다.

제1독서 이사 35,1-6ㄴ,10

제2독서 야고 5,7-10

복음 마태 11,2-11

입당송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화답송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장환명 요셉 신부 | 태전본당 주임



찬미예수님! 오늘 대림 제3주일은 자선 주일입니다. 저는 대림절 자선을 영적 자선과 물질적 자선으로 나누어 생각해봅니다. 대림절의 영적 자선은 우선적으로 교우들이 판공성사를 보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냉담교우는 스스로 성사표를 들고 고해소에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기도해주고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해성사로서 은총 상태를 회복해야 교회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판공성사를 보도록 도와주는 것은 대단히 큰 자선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냉담 교우들에게 성탄카드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자선은 아프면 간호하고 치료해주는 것이고 생활이 궁핍하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선 주일인 오늘은 자선활동을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하도록 권유하는 날입니다.

자선을 크게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 작은 것이라도 길게 지속적으로 오래 하면 구원공로를 쌓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89년도부터 병자봉성체를 하던 자매를 지금 까지 1년에 몇 번씩 지인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자선비를 가지고 방문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허리부터 하반신이 마비되어 한 번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살았으며 그 몸으로 언니를 보살피고 있었

습니다. 언니는 6:25때 남편이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뇌신경이 마비되어 그냥 앉아있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언니는 지난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현실 때문에 본당을 떠난 후에도 이따금 약간의 자선기금을 마련해서 들리곤 했습니다. 이번 자선 주일 성경 1말씀 중에 메시아 시대의 표징이 요세피나 자매와 깊게 연결되었습니다.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자선의 완성은 바로 구원이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자선행위는 완성될 하느님 나라의 작은 표징이 됨을 어렵듯이 깨닫게 됩니다.

요세피나 자매님! 이제 일흔 한 해 동안 누워서만 생활했던 육신의 고통이 끝나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 하신다.”(이사야 35,4)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건강한 몸으로 기쁘게 지내시다가 언젠가 저도 따라가면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 나와 마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정말 불쌍하게 70년을 살다가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기억력도 없이 하느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요세피나 자매를 위해서 모든 성인의 통공 신앙으로 기도해주시고 선행의 공로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궤로**

제30회 자선 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담화문(요약)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루카 11,4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서는 붙잡힌 이들을 풀어 주시고, 주님께서서는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께서서는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서는 ...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시편 146) 이 시편의 노래는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 나자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신 내용입니다(이사 61,1; 루카 4,18-19). 그분께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1)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복음은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루카 14,12-14)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자선에 관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삶이 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깊이 뿌리박힌 정신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자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사랑은 ...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이다.”(2444항) 이 가르침은 복음 말씀이 전하는 자선의 의미가 우리 가톨릭교회의 삶 속에도 깊게 흐르고 있음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니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거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은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

해, 정작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어들이는 현상을 가끔 보고는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언제나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왔으며,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주저 없이 다가갔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존재를 소홀히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이들을 찾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선 주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마태 25,4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그분을 맞이할 마구간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언제나 어디서나 기꺼이 내어 드림으로써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루카 11,41).

2013년 12월 15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 운 회** 주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문화홍보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직접 수립하신 것이므로 일반 세상의 단체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신경은 네 가지로 나누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종파가 많이 있지만,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에 대한 이 네 가지 믿음을 다 지키고 있는 교회는 오직 가톨릭교회뿐입니다.

하나인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몸에 합하여진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므로 이 몸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 안에 여러 분파가 있는 것은 사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결과이고, 실제로는 한 성령으로 같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오직 하나의 참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교회

교회는 하느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그 안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므로 거룩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으로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 속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신자들이 모두 무죄하고 성덕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멤버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교회에 속한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한 교회는 여전히 거룩합니다.

보편된 교회

옛날에는 “공변된 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뜻입니다. 이 보편되다(히랍어로 *katholikos*)는 말에서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며, 초대 교부들 때부터 이 이름으로 하느님의 교회를 일컬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이므로 가입 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든지 인종과 출신을 불문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우리 교구의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님께서는 전 교구장이셨던 고(故) 최영수 대주교님께 주교품을 받으셨고, 최 대주교님은 그 전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님께 주교품을 받으셨습니다. 이 주교품의 족보를 죽 따라 올라가면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중 한 분에게 이릅니다. 세상 모든 주교님들은 그래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사도들의 후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명령 없이는 아무 사람도 목자의 직무를 스스로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번 호로 '신경해설' 연재를 마칩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

몇 해 전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매우 신비로운 실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생들이 직접 참가한 실험이었는데 한 그룹의 학생들은 돈을 받는 노동에,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 봉사활동에 참여케 했습니다. 연구진은 노동을 마친 학생들의 체내 면역기능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무료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 나쁜 병균을 물리치는 항생체가 나타났고 면역기능도 크게 증강되었습니다. 실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읽게 한 다음 인체변화를 조사했더니 봉사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테레사 수녀님의 전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생명능력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침에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항체가 함유되어 있는데, 근심이나 긴장상태가 지속되면 침이 마르면서 이 항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또 다른 실험으로 학생들의 면역항체수치를 조사하여 기록한 뒤, 테레사 수녀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여주고 그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면역항체수치가 실험 전보다 일제히 높게 나타났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타인에 대한 봉사를 생각하거나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면역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두고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봉사와 사랑을 베풀며 일생을 보낸 테레사 수녀님의 이름을 붙여 테레사 효과(Therese Effect)라고 공식적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실제로 남을 도우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히 좋아지게 하고 엔돌핀이 평소의 3배 이상 분비되어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얻는 기쁨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평생 험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돌보다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님께서서 이끌었던 인도 켈카타의 봉사단체 사무실에는 지금도 다음과 같은 글귀가 걸려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두 개의 빵을 갖고 있다면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고 또 하나는 그 빵을 팔아 히야신스 꽃을 사십시오. 그대의 영혼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필로**

금주의 성인

성 베드로 카니시오 (12월 21일)

독일의 제2의 사도라 불리는 베드로 카니시오 성인께서는 네덜란드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법률가가 되고자 하였다가 예수회원인 파베르 신부님의 영향을 받아 신학으로 전향하여 예수회 회원이 되셨다. 사제로 서품되신 후 종교 분열이 한창이던 독일에서 수년 동안 저술과 설교로 이단에 맞서 정통 가톨릭 교리를 수호하는데 헌신하셨다. 또한 여러 개의 대학을 설립하시고 성직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신자들을 위해 교리서를 편찬하셨다. 성인께서는 비오 11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으며 교회학자로 선포되었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2월 22일 일요일은 (故) 서정덕 알렉산델 보좌주교님 선종 12주기입니다.

■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출범미사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 이상해 스테파노 신부) 출범미사가 12월 7일(토) 오후 7시 대안성당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옥현진(시몬, 광주대교구 보좌주교)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기사 및 제공 : 월간 <빛>

■ 대구정신병원, 대구지역 첫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교구 소속 의료기관인 대구정신병원(병원장: 배임표 신부)이 대구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30년 역사에 걸맞은 다양한 치료프로그램과 친절하고 따뜻한 의료서비스 등이 조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앙다이어리로 새해 설게 끝!

전례와 말씀 안에서 매일을 주님께,

교구 2014년도 **신앙다이어리** 출시

판매가 : 10,000원 | 예금주 _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송금계좌 _ 대구은행 505-10-147612-5

구입처 : 문화홍보실 053)250-3046~9



꽃보다 동물보다...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2월 16일(월) 10:00 경산성당		12월 17일(화) 14:00 신암성당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6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2월 18일(수) 10:00 죽도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6일(월) 11:00 죽도성당		12월 18일(수) 14:00 토마스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6일(월) 11:00 수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19일(목) 10:00 평화성당
김천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2월 16일(월) 19:30 김천화금성당	대구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2월 19일(목) 19:00 성모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7일(화) 14:00 계산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2월 21일(토) 11:00 성모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8일(수) 10:00 평화성당	-	-

성소 | 피정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현시, 미사, 안수)

일시: 12.18(수) 13:00~16:3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수도자와 함께 하는 2013 성탄전례피정

기간: 12.24(화)~25(수) 1박 2일

장소: 톡쥬포교네덕도회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313-3431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1.17(금) 13:00~19(일) 16:00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회비: 1만 원 / 문의: (010)5490-5345

하느님 그리고 내 마음 듣기

일시: 12.22(매월 셋째주 일) 14:00

장소: 상동성당수녀원(예수성심전교수녀회)

대상: 34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로사리아 수녀, (010)9330-3104

교육 | 모집

성령세미나 · 송년철야기도회

612차 2박 3일(청년): 1.3(금)~5(일)

613차 2박 3일(일반): 1.10(금)~12(일)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송년철야기도회: 12.27(금) 21:00

노들담오르프 단기 지도자 과정

기간: 1.6(월)~8(수) 9:30~18:00

장소: 가톨릭 소화 어린이집 강당

대상: 음악 교육, 음악 치료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문의: 권현경 수녀, (010)7392-1227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3.29(토)~4.6(일) 8박 9일

문의: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주관: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http://www.terrasanta.kr

2014 살레시오 겨울신앙학교

1차(중·고등): 1.14(화)~15(수)

2차(중·고등): 1.16(목)~17(금)

장소: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대전)

교육비: 4만 1천 원(간식 포함)

접수: (042)584-0654(선착순 마감)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1.24(금) 17:30~26(일)

4박 5일: 1.20(월) 14:00~24(금)

8박 9일: 12.26(목) 14:00~1.3(금)

에니어그램: 1.25(토) 15:30~26(일)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8

2014 목포가톨릭대 정시 신입생 모집

교육 역량 강화 사업 6년 연속 선정

인원: 간호학과 나군 20명, 다군 10명

원서접수: 12.20(금)~24(화)

원서접수처: 진학사, 유웨이

문의: (061)280-5108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시브마린리조트
170명 연회장(대, 중, 소 연회장 완비)
객실 68개 취사, 복층구조(초, 중, 고 수련회 환영)
해수사우나, 노래방, 스크린골프,
한, 일식당, 카피숍, 편의점 완비
www.submarineresort.co.kr
예약문의 054)293-1200 나중기(요아킴)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549-1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정기(바오로) 011-514-3555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미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내선전화 260-7777 외선전화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장역(구.달성교청자리)

예수님과 바오로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터키) - 14일
출발일: 2014년 1월 11일
순례경비 4,500,000원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코렐레(유스타노)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마리아유외과
Maria Breast Clinic
반월당네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

어혈치료(금전옥역 요법)
서문한의원
• 중풍예방 • 편두통
• 무릎, 어깨관절통 • 화병
• 간해독 및 장청소
원장 김 형 철(루카)
월~금 야간진료(저녁9시까지)
☎ 053)572-8721~2

ORANGE MOTORS 오렌지모터스
동대구IC 정비공장
판금/도장
일반/보험/수리전문
각종오일 및 소모품 (교우님 특별우대)
대표 이상훈(하상바오로) **958-0009**

천주교대구대교구

2013 사제·부제 서품

부제서품식: 12.26(목) 10:00

사제서품식: 12.27(금) 10:00

장소: 성 김대건 기념관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동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1.8(수)~10(금)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고3·대학·일반: 1.20(월)~22(수)

장소: 한티 피정의 집

(2014학년도 기준,

예비신학생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신청: 각 본당 사무실, 마감: 12.22(일)

성모기사회 7080 정기 모임

일시: 12.22(일) 14:00

장소: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원

문의: (070)4266-0047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2.16(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교육 | 모집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MR13차: 12.28(토)~29(일)

316차: 1.3(금)~5(일)

317차: 1.17(금)~19(일),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ME, 983-0521

오르간 성악 지휘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성요셉요양병원(구,논공가톨릭) 영성치유

노인성질환(치매·중풍 등), 말기암

환우 영성치유 돌봄

장효원 요셉 신부님 매일미사 봉헌

입원상담: 615-4871

대구가톨릭문화관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백세건강강좌(무료)

초코아트, 토크엔딩

문의: 476-62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정신적 육체적 건강하신 남녀

나이: 60세 미만

부분: 안내봉사, 기도봉사, 세발봉사

문의: 650-4442, 4438

채용 | 안내

푸른평화 매장 판매직 채용

업무: 친환경먹거리 판매, 가택 배송

자격: 스틱 운전 가능자(주부 선호)

장소: 고산역 5분(고산 상당 근처)

문의: 794-4021 / (010)5891-3339

압량본당 사무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문의: 817-5885~6

상지유치원 교사 채용

대상: 2~4년 경력

마감: 12.24(화)까지

문의: 558-4421~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3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아름

2014년 교구 신앙 다이어리 판매

판매가: 1만 원

예금주: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송금계좌: 대구)505-10-147612-5

구입 및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6~9

강남 피아노 종합악기할인점

중고피아노 고가 매입
조율, 운반, 수리, 매매

☎ 010-3541-8194
053)423-7009

김갑봉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교),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 & 발표력 & 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 · 취업 면접, 화술 · 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김민지(사비나)

인공신장실

신장 전문 수 외과

경북대병원 외과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 (053)642-7575



윤영희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용 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과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최추 · 관절 및 뇌 · 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성, 근골격질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진전

원장/전문의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